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난 5월 9일부터 16일까지, 무슬림이 많은 나라에서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파한 선교 소식.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자비의 열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몽골을 깨우는 성령의 바람

몽골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 울란바토르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시 임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

“주님 은혜로 몽땅 해결받았어요!”

산후풍과 우울증을 치료받고, 비만까지 해결된 오희정 집사와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우울증도 사라진 몽골 바야르사이항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891호 2019년 6월 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따르는 표적으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인도해



지난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레바논에서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와 권능의 손수건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의 기독교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친 ‘2000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이후 파키스탄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뤄오는 가운데, 중동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전파되면서 중동 선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 집회는 5월 9일(목)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 라이안호텔에서 샤르자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1, 2).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세계 선교 사역이 담긴 ‘권능의 사역’ 영상 상영 후, 강사 길태식 목사는 ‘권능의 사역’(행 2:22)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이처럼 해외 연합대성회를 비롯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 무수한 영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면서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라며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주요 항목에 대해 전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감동적이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10일(금) 낮, 바시르 바하두르 목사가 담임하는 샤르자 소재 파키스탄계 교회에서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렸다. 길 목사는 ‘빛 가운데 거할 때 축복’(요일 1:5)이라는 말씀을 증거한 후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러자 3년간 잘 듣지 못했던 성도가 잘 듣게 되고, 한 성도는 6개월 된 심한 등 통증이 즉시 치료되는 등 간증이 이어졌다(사진 5, 6).

이날 오후 4시에는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한 교회에서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진행되었다. 강사 길 목사는 이곳에서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기도해 주었다(사진 3). 그 결과 2개월 동

안 무릎을 굽힐 수 없었던 성도가 성령의 불을 받아 무릎을 굽힐 수 있었으며, 팔을 들 수 없었던 성도들이 팔을 자유롭게 올리게 되고, 각종 통증이 사라지는 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 줄지어 간증하였다(사진 7, 8).

이에 담임 목사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놀랐습니다”라고 감사해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주일) 오전에는 이집트 오순절 교회에서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열렸는데, 길 목사는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고전 2:6~9)에 대해 전했고 단에서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해 주자 많은 성도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였다(사진 4).

마리나 자매는 5년간 매일 울 정도로 심각했던 두통을, 움 에마드 성도는 25년 동안 심했던 기침을 치료받아 기쁨으로 간증했다(사진 9, 10). 이 외에도 유선질

환, 자궁 종양, 어깨 통증 등 각색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날 저녁, 길 목사는 আজیز 모르간 목사(만민파운데이션 대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아마라 성도는 선천적으로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 13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으나 기도받은 후 통증이 사라졌으며, 마그디 성도는 3년 된 등 통증을 치료받았다(사진 11, 12).

13일(월)에는 이집트 만민파운데이션 목회자 세미나가 전날 저녁 집회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길 목사는 ‘권능의 사역’(행 2:22)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해야 할 것”을 전했다.

마지막 선교 일정은 레바논에서 진행되었다. 15일(수)에는 주요 목회자들을 만나 만민의 선교 사역을 전했으며, 16일(목)에는 한 교회에 초청받아 인사말과 함께 향후 선교 사역을 위해 협의하였다.



# 자비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람들은 종종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거나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자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진정한 용서, 곧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에게 큰 허물이 있다 해도, 혹은 중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다 해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이 앞서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이해해 주며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징계받는 사람을 볼 때에도 긍휼히 여기며 그가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2)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구제합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곤란을 겪는 사람을 마음으로만 불쌍해하고 말로만 “힘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려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약 2:15~16 ; 요일 3:17~18).

## 1. 자비의 열매란 무엇인가?

자비(慈悲)는 사전적으로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 2. 자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특징

### 1) 편견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생들을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눅 6:36)고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지요.

어떤 문제로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 원하고 고통을 덜어 주기 원하는 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더구나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영혼들을 볼 때는 어찌하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을 씁니다.

자비의 마음은 사랑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영적인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자비는 용서와 포용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감싸 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힘과 위로가 되어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면에서도 편견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인 깨달음이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 중에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이도 있고, 주의 교양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아휴, 답답해. 왜 저것밖에 생각을 못할까” 하며 무시하고 멀리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말없이 땅에 무언가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하시지요.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 당부하십니다. 곧 용서할 수 없는 죄임에도 용서함으로써 여인에게 돌이

저는 가난의 고통을 절실히 겪어 봤고, 질병으로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처절하게 체험했기에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제 자신의 일처럼 느낍니다. 어찌하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 소원이지요.

그래서 기도 끝에 얻은 답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난과 질병, 온갖 재앙과 고난을 일일이 해결해 줄 수 없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되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큰 권능을 보여 주고자 했지요.

물론 권능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들이 든든한 믿음 위에 설 때까지는 영육 간에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기에 교회적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 구제했습니다.

### 3) 상대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지적이나 책망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덮어 주고 용서한다면 상대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징계나 책망, 지적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지적을 한다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오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독서 시 우송료만은 장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잠 12:18). 특히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자기 의와 틀 속에서 영적인 사랑이 없이 지적할 때는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책망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또 그들은 가르치는 입장이었기에 백성들이라도 깨닫고 그들의 외식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찌르는 말이나 허물을 들춰내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권면을 한다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4)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상대에게 공격을 돌립니다

어떤 대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내 것을 내줄 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지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곁에 두시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셨지요. 어찌하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오히려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지요(눅 23:34).

이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능히 용서하는 마음이 자비인 것입니다. 스테반은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찢린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증거이며, 마음에 어떤 미움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아무리 성격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도 상대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싫은 느낌을 바꿀 수 있고,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가 불쌍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지요.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바꿔 나가면서 마음 안에 미움이나 악한 감정들을 뽑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잘한 일이 있을 때 상대의 공으로 돌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허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상대를 앞세울 수 있고 그에게 공격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공로를 인정받은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열매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의 간증이 넘치며,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 성령의 역사 불같이 임하다!



### 울란바토르만민교회 권능의 손수건 집회

지난 5월 17일(금) 저녁 7시, 앙흐바야르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울란바토르만민교회 예능팀의 충만한 위십과 본교회 빛의소리중창단의 몽골어 찬양과 무용으로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한 후 회개와 성령 충만한 기도 시간을 가졌고, 이어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다.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한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강한 역사를 체험하며 치

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나랑체제(65세, 여) 성도는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들었는데 잘 걷게 되었고, 한다(28세, 여) 성도는 어지럼증이 사라졌으며, 보양텔게리(24세, 남) 성도는 허리디스크가 치료되는 등 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기쁨으로 간증하였다(4면 참조).

특히 슌드 애르텐(25세, 여, 사진 ◆) 성도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종종 의식을 잃어 2~3시간 후에야 깨어났는데, 이날은 5분도 채 안 되어 기도를 받자마자 깨어나 함



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18일(토) 오후 2시에는 몽골만민교회에서 울란바토르와 몽골 만민교회의 일꾼 교육이 있었고, 오후 3시 45분부터는 성도 만남 이후 개인 심방으로 이어졌다.



### 몽골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

5월 1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그랜드 힐 호텔 컨퍼런스 홀에서 발저릭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울란바토르와 몽골 만민교회 예능팀의 특송과 본교회 빛의소리중창단의 공연은 교회 창립 16주년의 기쁨을 더해 주었고,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쁨준비 잘하자’라는

말씀을 전했다.

오후 2시 30분에는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열렸는데, 강사 이미영 목사는 ‘믿음’이라는 설교 후 기도를 해 주었다. 그 결과 토야(54세, 여) 집사는 전혀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가 들렸고, 바야르(76세, 남) 성도는 심장병 수술 후유증으로 접하지 않던 손가락이 접했다.

울지 오치랄(73세, 여) 성도는 전혀 안 보이던 오른쪽 눈을 기도받은 뒤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형태도 보이고 점점 시력이 회복되고 있다.

이날 새신자들도 많이 참석해 7년 된 무릎관절염, 20년 된 류머티즘관절염, 신장병 등을 치료받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 “주님의 은혜로 산후풍과 우울증, 비만까지 몽땅 해결받았어요!”

오희정 집사 (44세, 3대대 31교구)

2008년, 셋째 아이 출산 후 산후풍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한기가 들고 통증이 심했지요. 그런데 2010년 여름, 넷째까지 낳자 몸은 더욱 회복이 안 되고 산후풍도 심해져 사계절 내내 춥고 겨울에는 모자를 뒤집어쓰고 핫팩까지 꼭 넣고 다녀야 했습니다.

산후풍으로 몸이 약해지다 보니 직장에서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쓰러져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자는 것이 반복되어 체중은 늘어갔습니다. 2012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는 산후풍 증세가 많이 좋아졌으나 온전히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만 흘러갔지요.

그러던 2017년, 새해를 맞으며 저는 무언가 신앙의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마침 만민기도원 특별 환자 집회가 있어 참석했는데, 이복님 원장님은 제 비만 치료를 위해 다니엘철야를 7주간 작성하여 기도하라고 상담해 주셨지요. 그러나 저는 작성한 바를 지키지 못했고, 체중은 5kg가 더 늘어 158cm의 키에 75kg가 넘었습니다.



더욱이 2018년 봄,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특수 교사로 근무하는데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지고, 그것이 더 이상 조율이 안 되어서 일이 커지니 출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놀리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우울증의 시초였지요.

오해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창피했고, 모든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몹시 불안

했고, 불면증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중도 우울증’과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민기도원 환자집회에 참석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의와 틀, 교만, 상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마음을 발견했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과거의 모습들까지 떠올려 주시니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지키지 못한 다니엘철야 7주 작성 기도도 잘 마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영적인 충만함을 되찾아 가면서 저는 어느새 피곤함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힘도 생겼지요. 낮에는 기도원 오전 집회와 낮 기도회, 저녁에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니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이 줄었음에도 예전처럼 아프지도 않고 몸이 괜찮았습니다. 기도원 집회에 다닌 8개월 동안 체중도 17kg이나 줄었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2018년 겨울에는 춥다는 것을 못 느끼고 지나갔고, 핫팩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도 깨끗이 치료되어 2019년 3월에는 복직하였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며 영육 간에 치유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안 들리던 귀가 들리고 우울증이 사라져 꿈만 같습니다!”

바야르사이항 성도 (42세, 몽골만민교회)

지난 5월,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열리는데 그곳에 참석해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질병의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몽골만민교회에 등록하였지요.

스물세 살 때부터 먼지가 많은 의류공장에서 일해서인지 제 오른쪽 눈에서는 수시로 눈물이 흘렀고, 약을 잘못 먹은 뒤로 오른쪽 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슬픔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늘 우울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주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5월 17일, 저는 울란바토르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감사 이미영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온몸에 뜨거움이 임했고, 이어 전혀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이미영 목사님과의 성도 만남 때에는 더 잘 들렸지요. 게다가 오른쪽 눈에서 수시로 눈물이 나던 증세도 사라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도받을 때 갑자기 손이 심하게 떨리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졌는데, 제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고, 몸의 떨림도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현재 제 몸 상태는 더욱 좋아져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자유롭게 외출해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며 즐겁게 지내고 있지요. 무엇보다 지옥과 같았던 삶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치료받고, 남편(강별가)도 기도받은 뒤 왼쪽 눈의 시력이 좋아져 저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늘에 참 신이 계시구나!’ 확신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저를 만나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